

# 하이카컴퍼니 (HiCarCompany)

## 1. 회사 개요 및 소개

하이카컴퍼니는 (정식 법인명: 하이카이브(HIKIVE)) 2021년 12월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토큰증권(STO) 플랫폼과 인공지능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흔히 서비스명 “**원렛(WonLET)**”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원렛은 하이카컴퍼니(하이카이브)가 구축 중인 핵심 플랫폼의 명칭입니다. 회사명의 ‘HIKIVE’는 ‘Hi’(높은, 혁신)와 ‘Hive’(벌집, 집합체)를 조합한 말로, **혁신 금융 솔루션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이카컴퍼니의 창업자는 **이재범 대표**로, 2021년 창업 당시 이미 50대 초반의 금융·IT 분야 베테랑입니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 경험을 쌓은 후 한국에 돌아와, 국내 금융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비전은 “**데이터와 기술로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AI 기술**을 차세대 금융 프론트(Front) 혁신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하이카컴퍼니가 집중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토큰증권 플랫폼 – 원렛(WonLET): 원렛은 실물자산의 디지털

**증권화(Tokenization)와 실시간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자산의 토큰증권화**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풍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소규모 지분 단위로 쪼개어, 기관·개인 투자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STO(증권형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이카컴퍼니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확장과 ESG 투자 대중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토큰 보유자는 발전소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배당 형태로 받을 수 있어, 실물자산 기반의 안정적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렛 플랫폼은 자체 설계한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서 구동되며, 여타 경쟁사들의 폐쇄형 DLT 보다 뛰어난 기술적 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회사는 주장합니다. 실시간 거래, 높은 처리속도, 보안성 등을 내세워 **차별화된 STO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2. **AI 기반 증권신고서 스마트 에디터:** 이는 하이카컴퍼니가 개발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금융 문서 편집 솔루션**으로, 증권신고서 작성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툴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증권 발행(IPO 나 STO 등) 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법적 서류(증권신고서 등)는 작성이 복잡하고 오류 발생 여지가 큰데, 하이카컴퍼니는 **“Smart Editor with AI-Assistant”**를 통해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지능화했습니다. 이 에디터는 방대한 규정과 과거 사례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용자(발행사나 증권사)가 초안을 작성하면 오류를 검토·수정 제안하고, 누락된 정보를 알려주며, 규정에 맞게 양식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시스템과도 호환성을 제공하여, 작성한 문서를 곧바로 공시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솔루션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관련 업계(증권사 등)와 협업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하이카컴퍼니의 이러한 두 축 서비스는 서로 시너지를 냅니다. 원렛 플랫폼으로 STO 발행 시 스마트 에디터를 활용해 발행서를 신속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고, 발행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정기보고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 AI** 라는 조합은 핀테크 트렌드에서도 선도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성과:** 하이카컴퍼니는 설립 후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의미있는 협약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2022 년 12 월 **한국동서발전(공기업)** 및 금융기관과 3 자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신재생 에너지 기반 STO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실제 발전소 운영자로서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제도권 내 투자 구조 자문 및 인프라 지원을, 하이카컴퍼니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었습니다. 2023 년 3 월에는 **KB 증권 및 KB 금융지주**와 STO 공동 사업 협약을 맺어, 민간 금융권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2023 년 하반기에는 KB 금융그룹의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인 **KB 스타터스**에 선정되면서, KB 금융 산하 KB 핀테크랩 입주 및 다양한 사업연계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업들은 하이카컴퍼니의 기술과 사업 모델을 대형 플레이어들이 인정했다는 의미로, 스타트업으로서는 상당한 신뢰자산이 됩니다.

또한 하이카컴퍼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 2 서울핀테크랩**(마포구 소재)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어 2022 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핀테크랩은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네트워킹, 투자연계 등을 지원하는데, 하이카컴퍼니는 제 2 센터(블록체인 특화)에 입주하여 3년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금융파트너(현대해상 계열), 국토연구원** 등과도 연구 협력 및 자문을 얻었으며, 2022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국토연구원의 STO 연구 발간에 참여하는 등 **산학연 협력**에도 적극적입니다.

**특허 및 기술:** 블록체인 분야 특허 기업답게, 하이카컴퍼니는 플랫폼의 핵심 기술 요소들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토큰증권 발행/거래 관련 1~2 건의 기술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I 스마트 에디터 관련 알고리즘도 기술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재범 대표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증권형 토큰 제도는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오히려 우리가 먼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국내에서 검증한 기술로 해외 규제 환경에 맞춰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하이카컴퍼니는 2025년 하반기 싱가포르 지사, 2026년 상반기 두바이 지사 설립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글로벌 STO 허브 지역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외를 아우르는 디지털 증권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조직과 문화:** 하이카컴퍼니는 현재 직원 수 10여 명 내외의 작은 조직으로 추정됩니다(정확한 수는 미공개). 주로 블록체인 개발자, AI 개발자, 금융상품 기획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자인 이재범 대표가 사업개발과 대관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특유의 민첩함으로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프로토타입 개발, 규제샌드박스 승인, 주요 기관 제휴까지 성과를 만들어낸 점이 돋보입니다. 회사는 “**금융의 경계를 허물며 소비자 권익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으며, 작은 규모이지만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대표의 해외 인맥, 파트너사 등)를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이카컴퍼니(하이카이브)는 **혁신적인 STO 플랫폼 ‘원렛’과 AI 금융솔루션**이라는 두 날개로, 전통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려는 스타트업입니다. **ESG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증권 발행 절차의 효율화**로 시장 참여 문턱을 낮추는 등, 기존 금융시장에 없던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첫 사례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정부 인가와 대기업 파트너십도 확보했기에, 향후 우리나라의 **토큰증권 선도 기업**이자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